



전문가 21인이 전하는 주거 트렌드

21st Special Theme

획일적인 아파트 평면과 층간소음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딱 맞는, 제대로 된 집을 짓고자 하는 이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준비했다. 주택에 필요한 자재부터 조경, 시공에
이르기까지. 21살 <전원속의 내집>에서 엄선한
21개의 업체를 통해 올해 주거 트렌드를 짚어보고,
집짓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 보자.

추재 - 편집부

14

도심에서 하늘을 누리는
Urban Lifestyle 수익형 주택

#수익형주택 #신도시
#저에너지주택
#상가주택 #표준모델



대지의 단점을 요트 형태로 극복, 호수공원 뷰 커튼월과 이를 감싸는 화이트 벽돌로 마감했다.

택지지구, 나아가 도심에 짓는 주택은 땅의 가치를 최대화해 임대수익을 보장하면서도 단독주택처럼 나에게 꼭 맞는 공간으로 거주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건축주에 맞춰 고급주택을 설계·시공해 온 GIP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심 지역에 수익성은 물론 건축주의 삶까지 고려한 주택을 짓고 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 고가의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임대 수익을 얻기는 힘든 상황. 주거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뽕뽕한 한 채’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기에 GIP는 설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의 부동산·임대 시장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구성한다. 무엇보다 GIP가 강조하는 것은 ‘임대용’이 아닌 ‘주거용’으로서의 상가주택의 가치다.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투박하고 비효율적인 건물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마당을 누릴 수 있는, 거주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요즘 시대의 수익형 주택이 취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관을 넘어 관리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주택이 진정한 수익형 주택임을 잊지 말자.

집짓기 TIP

표준모델 임대 수익만 생각해서 싸게 지으면 요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 디자인은 물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하자 없는 시공 노하우 등을 집약해 GIP는 상가주택 표준모델 ‘VIVAS ROOFTOP’를 개발했다.



➔ GIP
031-8066-7710 | www.giparchi.com



CASE 1. R5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하남 미사 신도시 내 모퉁이 땅에 위치한 수익형 주택. 무언가를 덧대기보다 덜어낸 듯한 미니멀한 디자인에 화이트 워싱 목재와 블랙 세라믹 타일의 대비효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CASE 2. GRAND PIANO

마치 피아노를 연상하는 듯한 외관 덕분에 ‘GRAND PIANO’라는 애칭을 얻은 상가주택. 코너에 위치한 사다리꼴 형태의 부지에 곡선을 적절히 활용해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CASE 3. CRUMB & CRUST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은근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택. 송판 무늬가 선명한 노출콘크리트를 통해 모던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콘크리트가 가진 차가운 느낌을 따뜻한 목재 액자에 담았다.